

SUMMARY

애덤스미스에 대한 오해

1. 『국부론』 저자 이전의 『도덕감정론』 저자

- 이기심이 아닌 이타심을 강조한 『도덕감정론』
- 스미스 왈 “인간은 타인의 고통과 슬픔을 느낄 수 있는 동감하는 존재이다”
- 동감 능력을 바탕으로 한 인간은 항상 이타적인 것은 아니며 타인에게 침해를 줄 수 있는 양면적인 존재
- 신고전경제학에서 인간은 합리적이고 이기적이라는 전제를 세움으로써 애덤스미스가 강조한 인간의 동감 능력은 미반영

2. 애덤스미스는 기득권의 편이 아니었다.

- 당시는 중세의 길드 시스템이 유지되어 동업조합원만 경제적 자유를 누리던 시대
- 소수의 기득권자들에게 허용된 특혜를 철폐하고 국민 대다수의 경제적 자유를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
- 국민의 대다수인 노동자가 잘 살아야 국가가 번영하고 행복하다고 주장
- 자본가의 혁신과 노동자의 기여를 인정하고 상생해야 국가의 부를 증대시킨다고 역설

3. 애덤스미스의 주장은 ‘자유방임주의’가 아닌 ‘자연적 자유주의’

- 스미스 왈 “역사적으로 자유방임주의로 번영한 나라는 없다”
- 자연적 자연주의의 두 가지 조건 : 기득권의 독점과 특혜 철폐, 모두가 법을 위반하지 않는 것
- 두 가지 조건을 생략한 채로 ‘완전한 자유’만을 강조하여 자유방임주의자로 해석되어옴
- 정부의 감시하에 정의롭고 공정하게 돌아가는 시장이 바로 스미스가 생각하는 자유주의
- 자신의 이익 추구와 사회적 책임의 균형을 이루는 것이 자유라고 주장

Outro) 애덤스미스의 생각을 토대로 기업의 목적을 생각하자면

- 기업은 고객과 동감함으로써 기업과 고객의 행복을 동시에 증진
- 회사의 직원들이 더 나은 삶을 위해 매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회사의 발전에 기여
- 이 두 과정을 통해 기업은 지속 가능한 성장이 가능한 생존역량 확보
- 기업의 사회적 공헌활동을 통해 자본주의의 모순을 해결하는 움직임은 본래 애덤스미스의 철학 그 자체

REFERENCE

애덤스미스의 『국부론』

“거의 모든 동물류에서 각 동물은 성숙하면 완전히 독립하며, 자연상태에서는 다른 동물의 도움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그러나 인간은 항상 다른 동포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데, 단지 그들의 선심에만 기대해서는 그 도움을 얻을 수가 없다. 그가 만약 그들 자신의 자애심(self-love)이 자기에게 유리하게 발휘되도록 할 수 있다면, 그래서 자기가 그들 자신에게 이익이 된다는 것을 설득할 수 있다면, 그들의 도움을 얻으려는 그의 목적은 더 효과적으로 달성될 것이다. 타인과 어떤 종류의 거래를 하고자 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이렇게 제의한다. '내가 원하는 것을 나에게 주시오, 그러면 당신이 원하는 것을 가지게 될 것이오.' 이것이 이러한 거래에 담겨진 의미이다. 바로 이러한 방식으로 우리는 피차간에 자기가 필요로 하는 도움의 대부분을 얻게 된다. 우리가 매일 식사를 마련할 수 있는 것은 푸줏간 주인과 양조장 주인, 그리고 빵집 주인의 자비심 때문이 아니라, 그들 자신의 이익을 위한 그들의 고려 때문이다.”

“그러나 한 사회의 연간수입은 그 사회의 노동의 연간 총생산물의 교환가치와 정확히 같다. 또는 오히려 그것의 교환가치와 정확히 동일한 것이다. 따라서 각 개인이 최선을 다해 자기 자본을 본국 노동의 유지에 사용하고 노동생산물이 최대의 가치를 갖도록 노동을 이끈다면, 각 개인은 필연적으로 사회의 연간수입이 가능한 한 최대의 가치를 갖도록 노력하는 것이 된다. 사실 그는, 일반적으로 말해서, 공공의 이익을 그가 얼마나 촉진하는지도 모른다. 외국 노동보다 본국 노동의 유지를 선호하는 것은 오로지 자기 자신의 안전을 위해서고, 노동생산물이 최대의 가치를 갖도록 그 노동을 이끈 것은 오로지 자기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다. 이 경우 그는, 다른 많은 경우에서처럼, 보이지 않는 손에 이끌려서 그가 전혀 의도하지 않았던 목적을 달성하게 된다. 그가 의도하지 않았던 것이라고 해서 반드시 사회에 좋지 않은 것이 아니다. 그는 자기 자신의 이익을 추구함으로써 흔히, 그 자신이 진실로 사회의 이익을 증진시키려고 의도하는 경우보다, 더욱 효과적으로 그것을 증진시킨다. 나는 공공이익을 위해 사업한다고 떠드는 사람들이 좋은 일을 많이 하는 것을 본 적이 없다.”

ISSUE

1. 본문을 토대로 애덤스미스의 철학이 어떠한지 자신의 느낌 및 생각을 말해보자.

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하지 못하는 이유는 제품이나 서비스를 통해 고객 이익을 지속적으로 향상시키는 것을 어느 순간 멈추고 기업 이익에만 집착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기업의 이익은 결과다. 원인인 고객의 이익을 쫓아야 얻어지는 것이다. 다시 말해 고객의 이익을 우선하다 보면 기업의 이익이 늘어날 것이고, 기업의 생존 역량을 강화시키는 결과를 찾아올 것이다.

최근 많은 기업이 사회적 공헌 활동 등을 통해 자본주의의 모순을 해결하겠다고 나서고 있다. 기업의 공유가치 창출(CSV)이 경영활동의 필수요소로도 거론된다. 하지만 우리가 하고 있는 행동들은 스미스가 주장했던 자본주의 철학을 보완하는 것이 아닌, 그 자체였다.

- 본문 中 -

2. 애덤스미스의 철학을 참조하여 기업의 목적을 재정의해보자. 그리고 기업들이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은 어떠해야 하는가?

<국부론>은 당시 인도주의적 법령을 반대하는데 흔히 인용되었다
- 로버트L 하일브로너, 경제학자 -

3. 애덤스미스의 철학은 후손들에게 전해지면서 스미스 자신의 의도와 다른 방향으로 이용되었다. 이렇게 학자 자신의 주장이 왜곡된 사례가 또 있는가? 학자 자신의 철학이 후대에 다른 방향으로 전개된 사례를 찾아보자.